

종합

2가구 4명 사는 섬에 12억 들인 전기공급공사

“철탑홍물...에산낭비” 환경단체 반대 “섬 사람도 국민이다” 주민들은 환영

여수시 남면 소흘간도

2가구 4명만 사는 섬에 전기 공급공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문제로 여수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수시는 남면 소흘간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공사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했다. 3개의 철탑을 설치, 1km 거리에 있는 대항간도로

부터 전기를 끌어들이는 공사로 국비 포함 12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다. 문제는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단 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모두 노령이라는 점이다. 하루 몇시간씩의 ‘발동기 전기’에 의지해온 이들 주민에게 전기공급은 꿈에 그리던 일이다

시민단체들은 “소규모 섬에 대규

모 선로공사를 벌이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공급이 바람직하다”며 선로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소흘간도의 경우 선로공사 비용의 30%선인 4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태양열발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낙도 주민들의 인권은 환경론에 밀려 희생돼도 되느냐는 공사

우호론도 만만찮다.

대·소 횡간도 주민들 역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양질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선로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삼 살리기 운동본부 이재연 본부장은 “세월이 흘러 횡간도가 무인도로 변하면 철탑과 전주를 다시 철거할 수 밖에 없다”며 “여수시가 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기부금 모금 등록제 전환

소요경비 15%로 확대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최대 모집액의 15%까지 인정된다.

종전에는 모집액의 2%까지만 소요경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금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과 모집비용 총량비율 확대에 따른 회계장부의무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농촌결혼 이주여성 관광가이드로 활용

전남도 31명 양성교육

전남지역 농촌결혼 이주여성들의 관광가이드 역할이 확대된다. 전남도 여성회관(관장 정정신)은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1일 2시간씩 주 2회(매주 화, 금요일) 총 20회에 걸쳐 나주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교육실에서 농촌결혼 이주여성(필리핀 14명, 일본 7명, 중국 6명, 몽골 1명, 우즈베키스탄 2명, 인도네시아 1명) 31명을 대상으로 지역관광가이드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외국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난 2003년부터 국내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과정과 병행해 시작된 교육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이주여성 중 우리말이 능통하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과 2003년부터 실시한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교육을 통해 인증서를 취득한 외국인 여성 중 재교육 희망자 3명을 우선 선정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 예술, 지역 축제 등의 이론교육 및 발표 능력, 현장 답사 등으로 짜여진 교육을 마친 이주여성들은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안내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tunipark@kwangju.co.kr

판·검사 징계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판·검사 징계강화를 골자로 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검사들로부터 구성된 현행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3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징계청구 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대화 않겠다”

민중노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지만 정부가 부도덕하게 대화 판을 깔았다”며 “신의가 없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로드맵 지지 등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가는 수해지원 물자

남북수해동소팀이 광주·전남운동본부는 18일 광주시 금남로 1가 민주의 종각 앞에서 북녘 수해지원 물자 환송식을 가졌다.

남북수해동소팀이

남북수해동소팀이 광주·전남운동본부는 18일 광주시 금남로 1가 민주의 종각 앞에서 북녘 수해지원 물자 환송식을 가졌다.

공무원연금공단 ‘혈세’로 기금 보다 복지만 늘렸다

경영평가단, 부실재정 비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실한 재정으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기금 확충보다는 공무원 복지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기 자산배분 전략이 없고 1천800억이 넘는 비정규직 인력들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수 74명, 회계사 16명, 연구원 15명 등 모두 110명으로 구성된 정부자산평가단 경영평가단은 18일 87개 정부자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부실한 재정으로 국민세금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기금 확충보다는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공단이 기금증식사업에 쓴 돈은 2004년 4조1천772억원에서 2006년 3조8천790억원(감정)로 7% 이상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후생복지사업에 들어간 돈은 1조1천325억원에서 1조5천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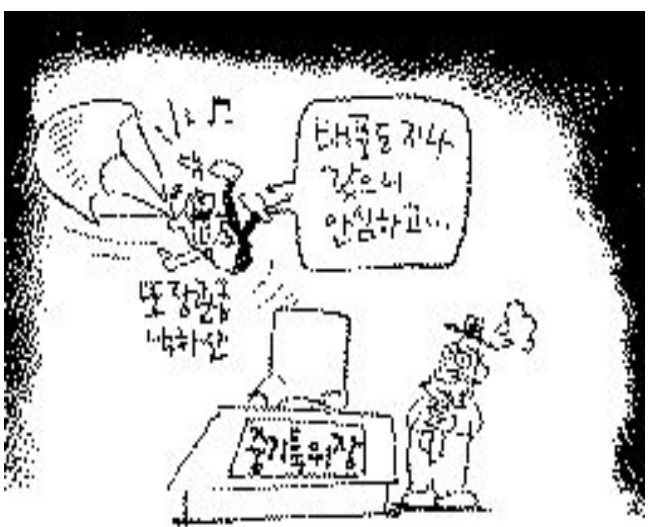
억원(감정)으로 37.5% 늘어났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공무원연급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조6천838억원(2003~2006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단은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자녀에 대해 실시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사업이 남는 비정규직 인력들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수 74명, 회계사 16명, 연구원 15명 등 모두 110명으로 구성된 정부자산평가단 경영평가단은 18일 87개 정부자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날씨까지 고려해서 내려온다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 광주시 43% 전국 최하위

3년간 60만건 245억 달해

전국 6대 도시 중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시로 조사됐다. 주차위반 단속 실적도 가장 저조했다.

44.8%, 인천 46.0%, 서울 46.1%, 순이었으며 대구가 50.3%로 가장 높았다. 6대 도시의 과태료 납부율 합계는 3천547억원으로 실제 납부율이 46.3%에 그쳤다.

최근 3년간(2003년 8월~2006년 8월) 광주시의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총 60만1천220건, 이에 따른 과태료는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의 단속실적은 서울(단속 1천158만건·과태료 4천721억원), 부산(단속 259만건·과태료 1천51억원),

인천(167만건·685억원), 대구(128만건·525억원), 대전(105만건·429억원)으로 광주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 비해서도 단속 건수가 적었다. 승용차 1대당 평균 단속 횟수는 광주가 0.4회,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이 1.4회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이 1.2회, 부산이 1.0회, 인천 0.8회, 대구 0.6회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현재 광주시의 공영주차면수는 2만3천221면(승용차 대수 39만7천464대)으로 나타났다. 도시별 승용자동차 대비 공영주차장 비율은 대전이 6.3%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8%로 두번째였다. 대구(5.1%), 인천(4.9%), 부산(4.2%)가 그 뒤를 이었다.

면책결정 확정공고
사 건 2006하민681 면책 (2006하민760)
판사자 오경섭 (620616-\*\*\*\*\*)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동 302-39
전화번호 205-9020
주 문 판사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 2006. 9. 15.
2006년 9월 15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주현

무담보 무보증
가계당좌예금수표차량급전
연락처 010-4408-8911

산행안내
▲청록산악회 전남 아산시~편안시
▲광목산악회 경기 양평 용조봉
▲가고파산악회 대구 화계봉~서봉
▲이대도산악회 전북 무주(사)
▲광주한국산악회 지리산 천왕봉
▲광주목요산악회 충남 보령 미진면
▲팔성산악회 경남 진해도 동백섬
▲울림산악회 전남 무안신례재
▲광주목요산악회 전남 보령 미진면
▲팔성산악회 경남 진해도 동백섬
▲울림산악회 전남 무안신례재

광주한일산악회
광주제일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광주제일보존산악회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삼흥포장은 2006년 8월 29일 주식회사 에이비이에스(이하 '에이비이에스')와 합병하여 그 합병당사자로서 주식회사 에이비이에스는 합병당사자로서 존속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삼흥포장의 자본금 10,000,000원, 보유주식 20,000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이비이에스로부터 10,000,000원의 보충주식 22,000주를 무상증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주식회사의 합병이 필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회사의 주권소지하고 있는 분 및 이 합병의 의미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 공고된.
2006년 8월 29일
주식회사 삼흥포장
광주 광안구 인월동 729-2
대표이사 정연숙
주식회사 에이비이에스
정성근 친필면 선처리 462
대표이사 이홍순

분할합병공고
2006년 9월 18일 각자 주주총회의 결의로 산비재정관리 주식회사(이하 "갑")와 건축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주식회사 벽강종합건설(이하 "을")이 분할할 합병("갑"의 건축공사업부문의 권리와부담 "을"이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며, 양회사는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권제출하여야 하며, 주주채권에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권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9월 18일
"갑" 산비재정관리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담리 276-5번지
대표이사 문영주
전화:062-266-2108 팩스:062-266-0671
"을" 주식회사 벽강종합건설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리리 72-9번지
대표이사 문영주
전화:062-266-2108 팩스:062-266-0671

상속한정승인공고
박 김용선(200429-1648417)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초로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년 164
공 고 인:박대식, 김용재, 김동진, 김용수, 김용태, 김용근, 김승희, 김민순
한정승인승인일:2006. 9. 12
공고기간:2006. 9. 19~11. 18
연 락 처:부산 사하구 정림동 193-6
상정전화번호 903
김용선(011-855-6789)

건물임대
1층 225평
2층 225평
3층 225평
4층 135평
대지 720평
주차 80대
하남부진로 80m 도로변
한국농촌공사 옆 건물
017-620-2311
010-2255-2600

공무원
행정·세무·교정직
검찰·사회복지·교육행정
정통 공무원 강좌
정규이론반·문제풀이반
40년 전국최고의 전통
노랑진·광주올스타팀 출강
청강후 등록(강의만점)

능률직
·실적·재택·이상우(전출재입원)
·국가검정전국·사이한영·영어·전해성
·전국 최고의 강사
소방직
·광주·전남·서울시 소방직 대비
·전국에서 소방직 전문강사임

경찰직
·일반경찰·해양경찰, 101단경찰
·정규이론반·문제풀이반
(동시강좌)
·전해성·선생·경찰영역특강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
전남고시학원
광주동부서취
062)222-5105